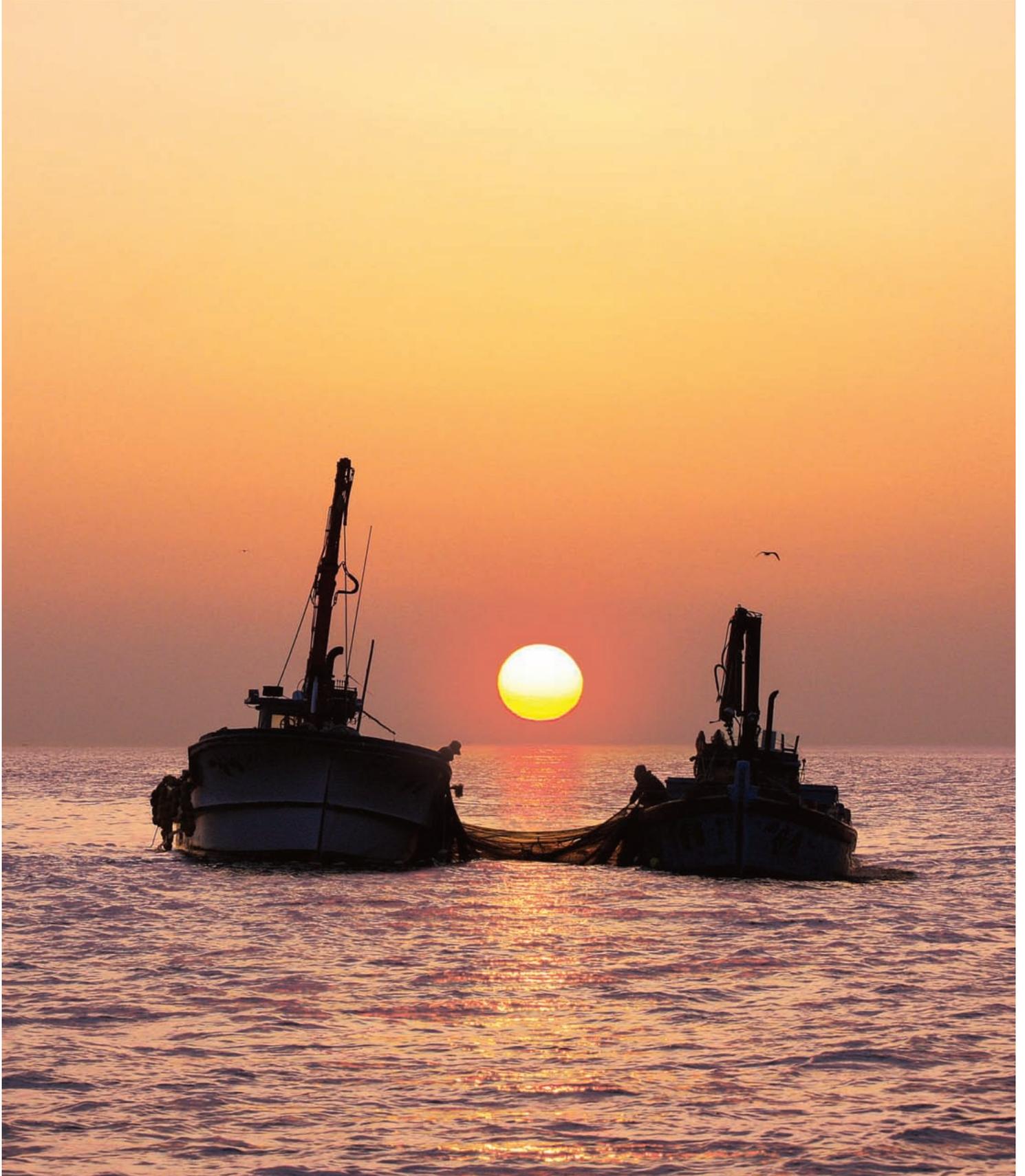


2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85





기미만세운동 100주년, 특히 다른 지역보다 치열했던 양양지역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자.
(사진 : 양양 3.1운동 재현행사(2018년))

COVER STORY



새벽을 여는 사람들



양양소식 · 285호

| 발행일 2019년 1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85

CONTENTS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 4 양양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7 생명의 강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양양군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 8 여성회관 교육교실 새 모습, 새 학기 준비 완료
- 9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희망양양

12 기획취재 남녀공학, 시대의 변화를 맞는 양양고, 양양중

14 ISSUE & PEOPLE

8군단 102기갑여단_군부대, 지역민과 더불어 소통하다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의 3·1만세운동

오감양양

18 SNS 속 양양 동이 틀 무렵, 새로운 양양을 맞이하다.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남면 인구1리

22 맛있는 양양여행 다시금 새겨보는 '양양과줄'

열린양양

24 책이야기 관점을 디자인하라 / 이달의 신간

25 정보꾸러미 이기최고자니/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기미년(1919년)에 일어난 양양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비 6억 8천만원 투입 을 한해 13개 사업 추진

올해는 기미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른 지역보다 치열했던 양양지역 만세운동의 뜻을 드높이기 위한 양양군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군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만세정신을 계승하고, 군민 모두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애국심과 역사인식 고양을 위한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은 '양양군 3·1운동 100주년 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기미년(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일어난 양양 3·1만세운동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많은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4월 9일까지 6일 동안 계속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금 또는 수형자 외에도 수없는 사람이 태형을 받아 전국 지방에서는 가장 극렬하게 일어난 기미만세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3·1만세운동, 하나되는 양양군'을 주제로, 기억·공감·화합의 마당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념식, 보존사업, 만세 재현, 사료발굴·제작, 문화행사, 선양사업, 홍보를 중점 추진한다.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위한 기억의 마당에는 역사를 보존하고 후세들의 학습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운동 관련 사료 발굴·정비 사업을, 순국선열의 정신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감의 마당에는 군민이 함께 100주년



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문화콘텐츠를 발굴·공유하는 사업을,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군민 화합의 마당으로 세대 간 소통과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올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며, 13개 사업으로는 3월 1일에 개최하는 100주년 추념식, 군민달리기 행사,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함흥기열사 추모행사 등을 비롯해 독립운동 다큐제작 홍보, 함흥기 열사 묘역 조성사업 및 기념 조형물 설치, 3·1운동사 책자 발간, 유공자 발굴 및 위패 정비, 충열사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3.1절 100주년 기념사업

1 3.1절 100주년 추념식

강원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새로운 군정발전의 기틀 마련

-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10:00 ~ 11:30
- ◆장소 : 충열사, 기사문리 3.1만세운동 유적공원
- ◆참석대상 : 300여명 (유족, 기관단체장, 공무원 등)

2 3.1운동 100주년 기념 군민달리기 행사

양양군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100년 전 드높았던 함성을 달리로 재현함으로써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13:00 ~ 15:00
- ◆구간 : 왕복 5km내외 구간 (군청-남대천 제방-시내중심-군청) ※ 태극기 들고 달리기
- ◆참석대상 : 1000여명 (주민, 학생, 군인 등)

3 3.1절 10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민들과 공유하고 3.1운동을 계기로 주민이 단결하는 장을 마련

- ◆방법 :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시연
- ◆시기 : 2009년 3월 1일(금) 19:00 ~ 20:00
- ◆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4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영동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거행된 양양장터 3.1만세운동을 재현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 ◆일시 : 2019년 4월4일(목) 10:00~12:00
- ◆장소 : 양양군청앞(4거리), 양양중앙로, 양양전통시장
- ◆행사내용 : 만세운동 재현, 연극공연
- ◆참석대상 : 주민, 학생, 기관단체장 등 1,500명

5 함흥기 열사 추모행사(연극공연)

손양면 가평리장 출신으로 22세에 목숨을 바친 함흥기 순국 열사의 뜻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애국심 고취

- ◆일시 : 2019년 3월1일(금) 14:00~16:00
- ◆장소 : 손양면사무소 게이트볼장
- ◆참석대상 : 유족, 손양면민, 학생
-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묘역조성, 기념비, 조형물(다목적광장 내)

6 함흥기 열사 묘역 조성사업 및 기념조형물 설치

함흥기 순국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일깨워 우리군이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고장으로 자리매김

- ◆장소 : 손양면 가평리 162-5번지 일원

7 독립운동 다큐제작

양양지역의 3.1운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

- ◆대상지역 : 양양을 포함한 전국 유명 만세운동 지역

8 양양의 3.1운동사 책자발간

우리군 3.1운동 사료를 조사,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자긍심 고취

- ◆발간시기 : 2019년 3월
- ◆발간부수 : 500부
- ◆주관 : 양양문화원(양양군 향토문화연구소),감수 양언석 교수
- ◆활용 : 학교, 교육청, 지역문화원, 강원도 등에 배포

9 3.1운동 유공자 발굴 및 위패 정비

독립유공자를 추가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고인의 명예를 회복

- ◆위패정비 : 총열사 위패 34위의 업적을 조사 및 정리
- ◆유공자 발굴 : 3.1독립유공자 추가 발굴, 추서

10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전통문화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움

- ◆사업내용 : 일제 강점기 일제잔재 지명 변경
- ◆연계사업 : 국토지리정보원 일제잔재 지명변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11 범군민 태극기 달기

전군민 태극기 게양으로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

- ◆기간 : 2019. 3.1
- ◆대상 : 양양군 전 가구, 가로변
- ◆내용 : 태극기 게양, 베너기 제작□게첨

12 100주년 기념식 홍보

모든 군민이 동참속에 거행되도록 다양한 매체통해 홍보



13 총열사 정비사업

순국선열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총열사 내부 및 주변을 정비하여 추모객이 안전하고 경건하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소 : 양양읍 군행리 총열사 일원
- ◆사업내용 : 석축 조성, 진입로 정비, 입간판 정비, 제단 정비



기미년(1919년) 양양군 3□1만세운동 일자별 운동상황

※ 양양군지(양양군지 편찬위원회, 2010) 요약

- 1. 21 고종황제 승하, 서울
- 2. 8 2.8 독립선언, 도쿄
- 2. 25 양양유림, 고종 인산(因山) 참여
- 3. 1 양양유림, 3.1만세운동, 만세운동 목격, 독립선언서 입수
- 3. 3 조화벽(호수돈 여성보통학교), 개성에서 만세운동에 관여, 선언서 입수
- 3. 20 양양에 귀향, 양양만세운동 계획
 - 보수적 유림들과 진보적 양양감리교와 연합하여 만세운동 계획
 - ※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이 연결고리
- 3. 27 독립선언서 인쇄, 태극기 제작, 각면 책임자 지정
 - 독립선언서는 면사무소 창고에서 등사 후 임천리 본부에 전달
 - 태극기 제작은 성내리 꽃집에 모여 3일간 5천매 제작
- 4. 3 태극기 만들다 적발, 압수, 22명 연행, 양양시장 철시, 만세운동 없었음
- 4. 4 장꾼으로 가장한 군중이 장터로 모임
 - 양양면
 - (구교리) 뒷산에 모여 만세부름, (조산리, 사천리) 군중이 청곡리에서 합세
 - (연창리)에서 경찰과 충돌, 계속 전진, (임천리와 거마리) 군중 서문밖 고개로 행진
 - (감곡리) 군중은 북문을 넘어 오다 경찰과 대치
 - 손양면
 - 군중이 남대천 동운교에서 경찰과 대치, 다리에서 흩어져 남대천을 건넌
 - 서면
 - 용천리와 북평리 사이 다리를 건너 옴
- 오전에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 오후부터 연행된 주민들 석방 요구하며 함악해짐
 - 체포자 석방 요구, 독립만세 외침, 일본경찰 발포 시작
- 가평리 이장 함홍기(22세)는 일본서장에게 화로를 던지며 함악하다 숨짐
 - 권병연(간리)도 저항하다 쓰러짐
- 상평리 김학구는 경찰서로 돌진하다 숨짐

- 4. 5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 군중이 가세
 - (주리, 우암리) 군중이 양양으로 향함, (왕도리)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진행
 - (우암리)는 농자천하지대본 깃발을 앞세움, 남대천에서 저지 당함
 - (강현면)은 가장 조직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
 - 물치장날, 시장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대포리)경찰주재소로 이동하여 만세부름
 - 강현면과 도천면 명일 양양장터로 가기로 계획함
- 4. 6 세 곳으로 나누어 전개
 - 도천면과 강현면 주민이 경찰 뚫고 양양에 진출
 - 보통학교 4학년이 군중속에서 만세부름
 - 4일 숨진 김학구 장례식 거행
 - 100여명이 서면사무소 습격
 - 침교리로 이동 장례, 그후 일경에 의해 이장
 - 군대와 강릉수비대등 6개 대대병력 배치
 -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생도들 만세부름
- 4. 7 9일 장날에 양양장에서 만세운동할 계획이었으나, 독립선언서 복사하려다 발각·체포
 - (원일전리, 장리, 도리) 200여명 군중 양양으로 행진
 - 일본군과 남대천 건지산과 두물외에서 대치, (용천)에서 4일 용천피해를 위로하는 만세
 - 양양에서는 14:00경 천도교 중심 주민 300여명 참여
 - 김학구 죽음에 항의하며 서면사무소 습격
 - 낙산사 승려들이 19:00에 등불로 만세운동
 - 각면에서 봉화를 들고 산위에서 만세운동
- 4. 8 도천면 논산리에서 약간의 시위가 있었음
 - 대포리 진행중 면서기 회유로 부월리에서 만세 운동, 이후 주동자 검거, 90대의 태형을 맞음
- 4. 9 최고 참상을 기록한 기사문리 사건이 일어남
 - 양양으로 가기위해 하광정리 면사무소 앞 집결
 - 600명 이상이 군집, 독립된 줄 알 정도
 - 면사무소 습격, 면장 피신
 - 양양으로 가려던 계획 변경
 - 기사문리 경찰주재소로 방향을 바꿈
 - 주재소 다리에서 대치중 경찰이 발포

생명의 강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97억 투입, 자연친화 생태학습 □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명의 강, 양양 남대천에 산란을 위해 찾아오는 연어들을 위한 자연산란장이 조성된다.

우리군은 올해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14억 가운데 50%의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한 해수부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197억원을 투입하여 남대천 일원 58,000㎡ 부지에 길이 1km, 폭 10m 규모의 자연산란장을 조성한다. 기본계획 및 설계에 14억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공사에 100억원, 관리시설 구축을 위해 83억원 등이 투입된다.

사업 1년 차인 2019년은 국비 7억원과 지방비 7억원을 들여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까지 남대천 일원 5만8천㎡에 길이 1km, 폭 10m의 한국형 자연산란장과 연어 생태연구·관리동, 캠핑장, 부대시설 등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2025년 연어 박물관을 준공하는 등 연어 자연산란장 일대를 생태공원, 체험·교육, 음



연어 산란장 예정부지

식문화, 레저시설, 캠핑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군은 이번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라는 명성이 다시 한 번 크게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연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관 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해양수산물 자원개발담당 Tel. 033-670-2744

양양군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송천리 산불, 유기적 공조체제와 체계적인 진화작업으로 큰피해 줄여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 경 양양군 서면 송천리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28배에 이르는 20ha의 산림을 태우고 이틀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한 인근에 마을과 생활공간등이 자리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진화헬기와 소방차,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인명과 주택피해는 없었다. 어둠이 내리면서 진화작업이 여의치 않았지만, 저지선을 구축해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와 체계적인 진화작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최근 계속적으로 건조한 기상이 이어지고, 지형적인 영향의 국지적 강풍 발생으로 소형 산불도 자칫 중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우리군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취약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 발생의 고리를 원천 봉쇄하고, 통합지휘 및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청을 비롯한 6개 읍·면사무소에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

영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며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투입, 주·야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그 외 유급감시원, 이장단으로 구성된 314명의 산불감시원도 2월 1일 부터 산불 취약지역 등에 상시 배치되어 근무한다. 또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긴밀한 산불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산불시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산림실화죄가 성립돼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군민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산림녹지와 산림보호담당 Tel. 033-670-2714

지난 1월1일 송천리 산불에 도움을 주신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강릉시청, 동해시청, 속초시청, 고성군청, 삼척시청, 강릉국유림, 양양국유림, 설악산국립공원,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경찰, 의용소방대, 515항공대, 군부대 외 많은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새 모습, 새 학기 준비 완료

4개분야 39과정 540명 수강생 모집 중

1998년 여성복지 및 교육복지를 위해 개관한 우리군 여성회관은 수강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교실 확충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실 확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 증설 등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 증축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여가 선용을 위해 2019년 3월 7일(목)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교실을 개강'하며 2월 18일 (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교양·문화, 건강·체육, 언어, 기술·기능 등 4개 분야 39개 과정(주간 23, 야간 16)이며, 모집정원은 모두 540명이다. 왕초보 밀반찬, 커피핸드드립, 그림의 기초, 한글문해교육 등 남성 수강생들의 수요 반영 및 남·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강좌를 개설하였다.

2월 18일(월) ~ 22일(금) 까지 5일 동안 여성회관 및 6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문접수를 실시한다. 여성 뿐 아니라,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교육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 제공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개 채용 및 심의를 통해 전문 강사를 채용하고, 특히 각 강의실 시설과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만반의 교육 준비를 마쳤다.

수강료는 교육시간에 따라 2만원부터 3만원 까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이 제공되며, 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셋째 만12세 이하) 등은 증빙서를 제출하면 1인 1과목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 신청인원을 토대로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2월 27일 수요일 17시 공개추첨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모집정원 70% 미만인 과정은 부득이 폐강한다.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교실은 다음달 7일(목)부터 6월 27일(목)까지 16주 동안 진행된다.

문의 복지과 여성가족담당
Tel. 033-670-2370



프로그램(39과목) 오전10시 / 오후13:30 / 야간18:30

주간 23	과목명	시간표	시간	수강료	강의실	인원	개인준비물
교양	1 노래교실	월/목 오전	4	3만원	대회의실	20	개인 텀블러
	2 문인화	월 오후	4	3만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3 한문서예	수 오전	2	2만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4 그림의 기초	수 오후	3	2만5천원	305	12	플기도구(개강일공기)
	5 여행수채화(주간)	목 오전	2	2만원	305	12	플기도구(개강일공기)
	6 민화초급	목 오후	4	3만원	305	12	재료공동구매(개강일공기)
	7 한글서예	금 오후	4	3만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건강	8 명상요가	월/수 오전	4	3만원	4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9 파워요가	화/목 오전	4	3만원	4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10 춤바	월/수 오전	4	3만원	1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11 댄스스포츠(주간)	화/목 오전	4	3만원	1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12 일본어회화	월/수 오전	4	3만원	304	15	개인 텀블러
언어	13 영어회화(초급)	월/수 오후	4	3만원	303	15	개인 텀블러
	14 영어회화중급(주간)	화/목 오전	4	3만원	304	15	개인 텀블러
	15 한글문해교육(학력인정)	화/목 오후	4	3만원	303	15	교재제공(교육부)
	16 한지공예	월 오후	4	3만원	201	15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17 꽃공예 기초(전통 絨花)	화 오후	4	3만원	201	15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기능	18 꽃누르미	목 오후	4	3만원	201	15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19 전통차(茶道)	금 오후	3	2만5천원	201	15	재료공동구매 약30만원
	20 실용의상(중급)	월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21 홈패션(중급)	수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22 의상리폼(중급)	목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23 재봉틀 기초	금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동구매 약15만원
	야간 16	과목명	시간표	시간	수강료	강의실	인원
교양	1 캘리그래피	월	3	2만5천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2 바이올린 기초	화	3	2만5천원	대회의실	15	개인악기
	3 우쿨렐레	수	3	2만5천원	대회의실	15	개인악기
	4 뽕기타	목	3	2만5천원	대회의실	15	개인악기, 개인발판
	5 여행수채화(야간)	목	2	2만원	304	12	플기도구(개강일공기)
건강	6 직장인요가	화/목	4	3만원	4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7 댄스스포츠(야간)	월/수	4	3만원	1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8 라인댄스	화/목	4	3만원	101	15	개인 텀블러, 수건
	9 영어회화중급(야간)	월/수	4	3만원	304	15	개인 텀블러
	10 중국어회화	월/수	4	3만원	303	15	개인 텀블러
언어	11 왕초보 밀반찬	월	3	2만5천원	조리실	12	재료공동구매 약20만원
	12 커피핸드드립(취미반)	화	3	2만5천원	조리실	12	재료공동구매 약10만원
	13 플로리스트(취미반)	화	3	2만5천원	201	12	재료공동구매 약45만원
	14 시간반	목	2	2만원	303	15	개인카메라, 재료비 약30만원
	15 퀵트	월/수	4	3만원	307	12	재료비 약15만원
	16 홈패션(야간)	화	3	2만5천원	307	12	재료비 약15만원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양양군 통합사회단체 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1. 15)
2. '축하합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개소식 (1. 16)
3. 연창리 복지회관이 문을 열었어요. (1. 22)
4. 올해도 풍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열렸습니다.
5. 100세 인생 활기차게!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
6. 활기찬 겨울나기! 농한기 여성회관 이동교육교실
7. 우리마을을 부탁해요! 2019이장 역량강화 워크숍(1. 15)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양양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25개 부서(2실, 11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으로부터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부서 목표 및 추진전략, 올해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의원들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올

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7기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청취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의원, 간사 박봉균 의원)를 구성하여 의원 발의된 2개의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및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개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민원접수 처리체계 구축

고제철 의장은 각 읍·면별로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을 만들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처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 인사업무 추진시 개인별 업무 동기부여와 직렬별 업무수행 분석, 직무관련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정업무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프로그램 홍보 강화

김귀선 부의장은 도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기간에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시했다.

소하천 정비시 생태습지 훼손 방지

김우섭 의원은 환경과 소관 매호생태 복원사업과 건설교통과의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연계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시 6개월만 고용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시 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김택철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둔전계곡 탐방로, 남애1리 해안관광자원개발 등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취지는 좋지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내 버스, 택시 기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휴게소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 정보 접근성 및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 해소

김의성 의원은 교육지원 사업 추진시 진로적성 교육 및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교육문화 정보 접근성과 인프라 부족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와 문화예술 분야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남문4리 경로당 입주 문제 등 주관부서 적극 노력

박봉균 의원은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공사가 진척이 없는데 주관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남문4리 경로당 입주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면 갈천리 왕생골 마을이 사유지로 인해 도로가 막혀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 추진 지원

이종석 의원은 2020년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처음 개최되는만큼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정리~포월리 짧은 구간에 설치된 교통신호 세 개가 연동이 안되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녀 공학, 시대의 변화를 맞는 양양고, 양양중 남녀 협동과 양성 평등의 시대를 맞다



그동안 양양읍내에 소재했던 중·고등학교는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로 각각 남학교와 여학교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19학년도를 기점으로 남녀 공학으로 재편돼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신입생을 맞이한다. 기존의 학교 시설은 남·녀 중·고등학교 병설로 2개교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씩 단 설로 재편되는 것이 큰 변화이다. 현재 두 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학교의 제반 시설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시대의 변화, 중학교의 남녀공학제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강원도내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으로 변화하는 것은 수업혁신과 학생 선택권 확대, 남녀 협동학습,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양양군의 경우는 양양중학교와 양양여자중학교가 해당되었는데, 지역 특성상 중·고등학교가 병설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교사(校舍) 등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가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기존의 양양중·고등학교가 양양고로, 중학교는 기존의 양양여자중·고등학교가 양양중학교로 바뀌게 된다.





중·고등학교 남녀 공학 전환 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 관계자 및 일반 시민단체 등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양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률은 80.3%로 지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응답자의 65.5%가 찬성, 중·고 분리 동시 전환도 66.2%가 찬성했다. 남녀 공학의 찬성 이유는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이 이성을 의식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 및 이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 규모가 커짐으로써 학생 수 증가로 인한 내신 점수 상승이 기대된

다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이성 문제로 공부에 방해되거나 내신 성적에 불리해서라는 반대의 견도 있었다. 또한 남녀공학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학교 운동장 여건, 사춘기 생활지도 어려움 등을 우려했는데, 앞으로 교육 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주민의견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면 사회성 발달 및 이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면 수업의 질이 더 좋아지고, 특히 교과담당 전공교사 확보 효과에 따른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모교, 아쉽지만 시대변화 수용

그동안 양양지역의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양여고의 경우 2018학년도 1학년 학급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제는 양양고와 양양여고가 병합됨으로써 <양양고등학교>는 1학년 168명, 2학년 139명, 3학년 171명으로 학교 규모가 커지고 학습 분위기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 학교는 모두 1950년대에 개교해 양양지역민들

의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동문이자 지역민으로서 모교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또 다른 변화 속에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문화가 생성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2019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남녀공학인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중학교>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

<글·사진 : 편집부>



제65회 양양여자 중학교, 제6회 양양여자 고등학교 졸업식

ISSUE & PEOPLE 8군단 102기갑여단

군부대, 지역민과 더불어 소통하다.



지역주민 위문활동

11년차 아양사람 박재원 주임원사

양양군 강현면에 위치한 8군단 102기갑여단에는 2천여 명의 든든한 양양사람들이 있다. 근무지에 잠깐 머물다 가는 직장인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지만, 군 생활을 위해 양양에 온 102기갑여단 2천여 명의 군인들은 90% 이상이 양양으로 주소를 옮기고 양양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양양에 온지 11년 된 박재원 주임원사는 은퇴한 후에도 양양에 살고 싶다고 한다. 사람들이 좋고 바다가 멋진 양양에서 인생 이모작으로 즐겁게 살아 볼 계획이다.

강원도민화 우수부대 선정

8군단 102기갑여단은 지난해 강원도민화 운동 우수부대로 선발되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군 장병의 '강원도민화' 운동은 주둔지로 주소지 이전을 하고 대민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대민 물의 사고는 없었는지 등 모두 9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102기갑여단의 부대원들은 가족 등 주소지를 이전한 부대원이 90% 이상이고, 지역민들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 재해·재난 시 대민 지원은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 폭염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이

나 위문방문, 지역주민을 초청 등으로 지역민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덕분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통데이'를 정하고 부대원들이 월 2회 강현면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서 식사를 하는 등 연간 1억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나눔 장터를 열어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독서 나눔 운동으로 책 읽을 때 마다 적립해 적립금으로 도서를 구입, 기증하는 등 지역민과 나누고 보태는 일에 적극적이다.



군부대, 지역민과 더불어 소통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부대는 훈련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보다는 폐쇄적인 입장이었다. 이제는 개방적인 소통과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군부대가 상주할 경우, 지역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102기갑여단은 군무기 등이 많아 훈련을 할 경우 장비 이동 등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소음으로 인해 축사 피해 등 민원이 많았다. 상봉리 사격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오랫동안 민원 발생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102기갑여단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민 홍보와 대민 봉사에 나서고 있다.

102기갑여단의 터줏대감격인 박재원 주임원사는 사격 훈련장이 있는 상봉리 이장님과 자주 만난다.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기 위해 평상시 자주 찾아가 소통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피해를 덜기위해 민원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또한 훈련 한 달 전부터 마을을 찾아가 훈련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던 건조기에 비포장도로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한다거나, 속도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구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박재원 주임원사는 포항에서 20년간 군 생활을 하고 양양으로 온지 11년째, 퇴직 후에는 양



의료봉사

양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양양사람이다. 민민 체육대회나 지역 축제에도 열심히 참여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데도 열심이다. 양양이 왜 좋으냐고 물으니,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정과 친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손꼽는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

“저희 102기갑여단이 강현면 주민으로 살면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고 부대원들이 외식을 자주하는데, 102기갑여단 부대원이라고 아는 척도 해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듯 함께 나누고 돌보는 이웃사촌처럼 102기갑여단은 그렇게 양양사람으로 지역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잘 지내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의 3·1만세운동

호수돈여학교 비밀 결사대원 조화벽 지사

2019년 己亥年은 기미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양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말에 독립선언서의 유입이 단초가 되었다. 유입 경로는 두 갈래로 하나는 이석범 선생이었고, 또 하나는

양양 감리교회 조화벽 지사였다. 지난달에는 이석범 선생과 임천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달에는 개성 호수돈여학교 비밀 결사대원으로 개성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조화벽 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조화벽과 양양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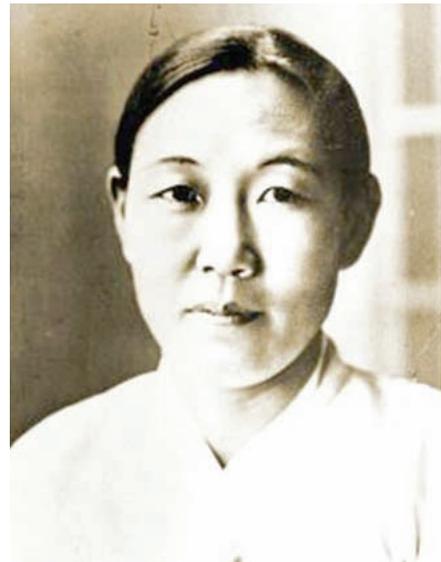
조화벽(趙和璧 1895.10.17.~1975.9.3.)은 양양 감리교회 전도사였던 조영순(趙英淳)의 누남독녀로 양양면 남문리에서 태어났다.

양양 감리교회는 1901년 10월 5일 하디(R.A.Hardie) 선교사에 의해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교회로, 항일운동에 앞장선 5대 김영학 목사, 8대 송정근 목사 그리고 조화벽 지사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성지이다.

김영학 목사는 당시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에게 대한독립에 대하여 일장연설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고, 송정근 목사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었으며, 6·25전쟁 때 납치된 후 학살되었다.

또한 조화벽 지사는 16세 되던 1910년에 유학을 떠나 원산 성경학교를 거쳐 루씨여학교(樓氏女學校)에서 수학한 후, 1919년에 개성 호수돈여학교 재학 중에 기미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학생 비밀결사대원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현재 28대 교역자로 31년째 시무하고 있는 담임 김한구(金漢九) 목사는 “양양 감리교회야말로 하디 선교사의 영적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구국제단”이라고 말한다.



조화벽 지사



양양감리교회 전경



28대 김한구 목사(출처-기독교타임즈)

양양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조화벽은 1919년 3월 5일 만세운동으로 개성 호수돈여학교의 휴교령으로 삼엄한 수색과 경계를 피하여,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몰래 감추어 원산을 거쳐 당시 양양 대포항으로 귀향하였다.

조화벽의 만머느리인 김정애(金貞愛,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대포항에 도착하자 일본 경찰이 소지품을 압수하고 검문을 하였는데, 버선목에 감춘 독립선언서가 발각될까 봐 굉장하 마음 졸였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감리교인이면 면사무소 급사였던 김필선(金弼善)에게 전달하고, 이석범 선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림과 양양 보통학교 동문 그리고 농민들을 규합하여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조화벽 지사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김필선은 김주호, 김재구 등 동료들과 면사무소의 등사기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했고, 한편 임천리에서는 이교완, 이교정 집에서 수십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던 중 장날을 하루 앞둔 4월 3일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마을 주민 20여 명이 체포되고 제작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374매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최인식(崔寅植)을 비롯한 많은 주동자들이 거마리 김종태(金鐘台) 집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성내리 뒷산에 있는 곳집(喪具保管所)과 거마리 김종



개성 호수돈여학교(출처-심옥주소장)

옥 집 뒷산 곳집에서 밤새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4일 장날 만세운동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때 조화벽 지사도 86매를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의 사정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결혼 후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다

조화벽은 1925년에 유우석(柳禹錫·유관순의 오빠)과 결혼하였고, 다시 귀향한 1932년에는 가난으로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농촌의 학생을 위하여 양양 감리교회에 정명학원을 개원하여 13년 동안 배출한 600여 명의 졸업생들에게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시켰다.

그 후 유우석의 고모인 유정숙(柳貞淑)은 양양면 사천리에서 여생을 보냈고 가족들은 양양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으며, 일부 친인척들은 지금도 양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조화벽 지사는 1982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춘천의 윤희순, 철원의 박진근과 함께 강원도의 3대 여성독립운동가로 꼽히고 있으며, 충절의 고장 양양의 근대 선각 여성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정명학원 제2회 졸업기념, 1939.3.25



정명학원1,2,7회 졸업생(출처-국립여성사전시관)

동이 틀 무렵, 새로운 양양을 맞이하다

〈양양 소식〉은 2019년 2월호부터 SNS 속 양양을 탐방해 본다.

한계절의 끝에서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이 맞물리는 2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새 직장, 새 학기, 또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 등 인생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마음은 희망찬 기대로 한껏 들뜨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섞여 있다.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마음을 단단히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양양의 겨울바다로 떠나보자. 탁 트인 풍경 속에 고민도 불안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어 본다.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남애항



알람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내다보니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되지 않게 온통 까맣다. 서둘러 민박집을 나선다. 새벽5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항구로 향했다. 바다 멀리서 환한 불빛들이 다가온다. 배다. 배들은 만선의 기쁨을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온다. 배가 들어오면 그 때부터 항구의 아침은 시작된다. 고기를 내리는 사람들과 고기의 값을 매기려는 경매사들이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재빠르게 움직인다. 잠들어 있던 항구는 순식간에 활기를 찾는다. 동이 틀 시간 해변 해가 바다를 삼킬 듯이 서서히 올라온다. 붉은 기운이 바다를 감싼다. 경매를 매기는 항구, 해가 떠오르는 해변을 보며 삶의 에너지를 쌓아본다. 남애항의 새벽이 생명이 넘친다면 오후의 남애항은 낭만이 반짝인다. 수면위로 햇살이 반짝거리고, 늦은 저녁에 등대의 불빛이 어둠속에서 반짝거린다. 스카이 워크에 올라 강원도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이 항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여 본다.

추억속으로.. 파도속으로.. 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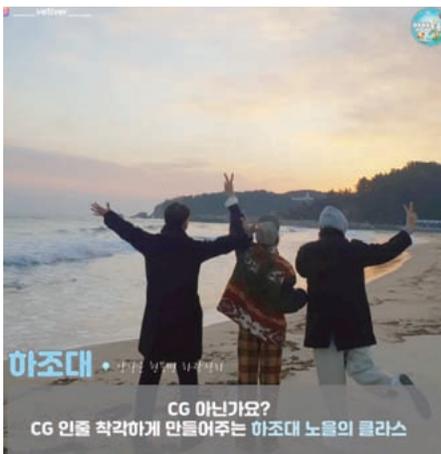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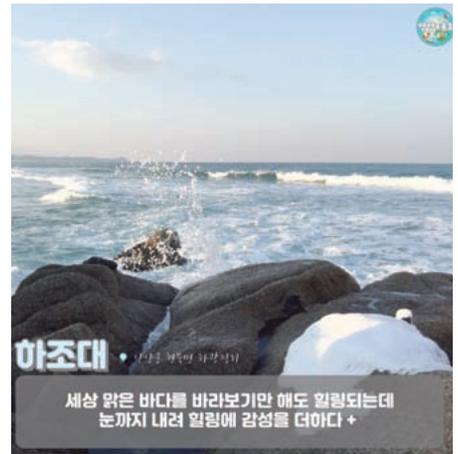
기사문항은 참 사연이 많은 곳이다. 백사장을 걸을 때면 기이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기사라 불리우고, 양양의 3.1만세운동이 시작된 만세고개와 분단의 슬픔이 깃든 38선의 굴곡진 역사, 그리고 어민들의 술한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는 곳이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파도가 좋기로 소문이 나 서핑마니아들이 계절을 불문하고 찾는 곳이기도 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염없이 겨울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몇 번 크게 일렁이더니 모래 위로 하얗게 밀려들어 내 발끝에서 부서진다. 몇 걸음 앞에 육지의 끝, 바다의 시작이 있었다. 넓은 바다가 앞으로 내가 헤쳐 나가야 할 미지의 세상처럼 느껴진다. 과연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거센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파도와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인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서핑보드에 몸을 맡기고 드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나는 양양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글·사진 : 편집부〉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SNS속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남면 인구리

인구리(仁邱里) '人口에 회자(膾炙)' 되다.

양양군 현남면 인구1리는 7번 국도를 경계로 하여, 죽도(竹島)를 끼고 바닷가에 자리잡은 소박한 어촌마을이다. 여름철이면 가족단위의 피서객이 즐겨 찾고, 주민들은 어가, 농가, 상가 등 고루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온 마을이다. 지금은 190가구 400여명의 주민가운데 고령의 토박이 주민들이 절반 정도, 외부에서 이주해 온 젊은 층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마을이다. 2013년을 시작으로 죽도해변이 서핑명소가 되면서 마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여름철 반짝 피서지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변화한 인구리(인구해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마을로 변신하고 있다.



인구리 양양군 현남면(인구리)
 · 조용하고 아담한 가족단위 여름 피서지
 · 새로운 레포츠 서핑명소로 거듭나
 · 변화되는 환경 속에 마을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 동참하다

인구리 전경

죽도정과 죽도 전망대는 해안 산책로의 쉼터

양양 8경중, 6경에 손꼽히는 '죽도정(竹島亭)'은 인구리 마을과 인구해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최근 해안 산책로가 갖춰져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을 만나고, 소나무와 대숲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오르면 '죽도정'(1965년 준공)이 자리하고 있다. 죽도정은 아름답리 소나무가 병풍처럼 싸고 있고, 솔향기의 그윽함을 만끽할 수 있어 신선함을 더해준다. 지난날 마을 주민들이 의지를 모아 전망 좋은 이곳에 죽도정을 건립했으니 마을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을 것이다. 죽도정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쉼터였다면, 최근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인구해변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죽도 전망대'이다. 2017년에 조성된 높이 20m의 '죽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추운 겨울철에도 파도타기를 즐기는 서퍼들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동해안에 무리지어 회귀하는 송어 떼가 때 이른 시기에 나타나자, "송어 떼는 겨울이 일 때마다 이를 거슬러 헤엄쳐 마치 서핑을 즐기는 듯했다."고 하니 '서핑'이 이제는 익숙한 생활 속 표현이 되었다.



산책로에서 본 기암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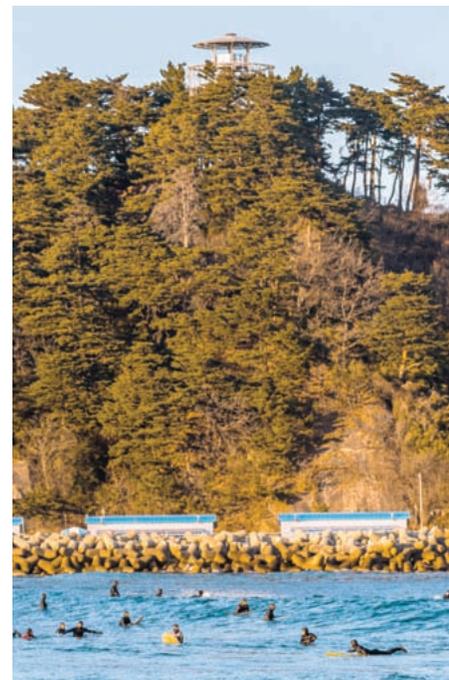
대한민국 서핑 1번지 양양, 그리고 힐링지 '인구해변'

인구해변은 완만한 백사장과 때마다 적당히 부는 바람과 높낮이를 달리하는 파도가 있어 서핑 동호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전국의 서핑숍 가운데 60%인 61개의숍이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연간 7만여 명이 서핑을 위해 양양 바다를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인구해변, 동산항, 설악해변, 남애3리 해변 등등 바닷가를 안고 있는 양양군의 모든 마을은 곧 서핑하기에 좋은 '서핑 놀이터'로 4계절 젊음과 낭만, 해양 레저 스포츠와 해양 힐링의 공간으로 스토리텔링화 되고 있다.

지난해 인구1리 일대에서 '그랑블루페스티벌 2018' 영화제가 열렸다. 서핑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영화인들의 축제가 열릴 정도로 외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마을이 되었다. 영화감독이 인구1리에 이주해 영화제를 열어서 지역민들과 영화인, 서퍼, 관광객들이 한여름 밤을 즐겁게 보냈다. 소박하면서도 주민들과 함께한 영화제가 열려서 주민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이 즐거운 여름밤을 함께 했다. 그런가하면 인구해변에서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황태연·이의지 부부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인구1리를 선택했다. 평소 서핑과 사진촬영지로 이곳을 자주 방문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좋아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그만 해변마을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인구1리는 소곤소곤 대두기 변화 발전하고 있다.



죽도전망대와 서퍼들



인구1리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어촌마을이 들쭉이는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4계절 서핑 명소가 되다보니 피서철에나 겪었던 주차난,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이 일 년 내내 골칫거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인구1리 전영재 이장을 비롯한 인구개발위원들은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마을의 변화·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만, 지역민에게 다소 부담을 주고, 지나친 난개발로 마을 인심이 예전 같지 못함에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인구1리는 지난해까지 수행한 어촌종합정비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마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양양군도 2019년도 서핑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핑관련 마을과 주민, 서핑숍, 기업체, 서퍼들이 상호 협력해 서핑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 계획이 있어 기대감을 갖고 있다.

(글:편집부, 사진제공 : 인구1리 황태연)

다시금 새겨 보는 '양양과줄'



달근 자갈로 만들었던 '자갈과줄' 이 있었다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되는 날로 '설'이란 말은 '설다', '낫설다' 등의 의미로 곧, 익숙하지가 못한 낫 선 날이 곧 '설날'이란 뜻이다. 육당 최남선 역시 이런 뜻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조심히 가만히 있으며, 한 해 동안 어느 날이고 탈 없이 지내게 해줍사 하는 뜻으로 축원행사와 절식(節食)으로 설을 쇠다”고 했다. 이처럼 '설'을 쇠었던 최초의 기록은 신라시대 비처왕 때, 정월 초하룻날에 왕이 조원전에 나와 백관들의 새해 축하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왕에게 새해를 축하하는 의례가 시작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를 과세문안(過歲問安)이라 하여, 새해를 맞이한 웃어른에게 안부를 여쭙는 인사풍습이며, 이에 좋은 일을 이루라는 뜻으로 건네주던 하례풍습이 덕담(德談)이다. 이같이 설을 쇠 때는 절기와 세시풍습에 따른 의례와 더불어, 절식으로 반드시 먹었던 음식이 '떡국'이었다.



함부로 만들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귀한 과줄

떡국은 설에 먹는 절식으로 떡의 색깔은 깨끗하게 시작하는 의미로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고, 떡과 모양은 무병장수를 뜻하는 길쭉한 가래떡으로 하며, 썰 때는 부자가 되라는 의미로 엽전처럼 동글동글하게 돈 같이 썰어 장국에다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끓인 다음 고춧가루를 뿌린 떡국(飮湯)을 만들어 먹었다.

지금처럼 뽕양고 하얀 떡국과는 사뭇 다른 설음식이다. 떡국과 함께 설음식으로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의 전통 과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인 한과(韓菓)류 중에서도 ‘과줄’ 이나 ‘강정’ 이다. 삼국유사 기록에 강정을 가야에서 제례음식으로 쓴다고 처음으로 기

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강정, 약과, 산자, 다식, 과줄 같은 한과류의 종류가 무려 254가지로 발전 될 만큼 한과가 대단한 인기 음식이었지만, 정작 궁중에서 명절, 잔치, 혼례, 제례 때에만 쓰던 음식으로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만들지도 먹지도 못하도록 법령으로 금지하기도 했던 절식 음식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과줄이나 강정은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을 지금까지 갖게 되면서 요즘의 과자처럼 일상적으로 아무 때나 먹지 않게 된 것이다.



못내 아쉬운 양양의 전통 자갈과줄

양양의 음식 중에 온전히 먹고 살기위해 천리 길 멀다 않고 걸던 다리 품으로 만들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통을 잇고 있는 두 가지 전통음식이 있다. 서면 송천리의 ‘떡’ 과 포월리의 ‘과줄’ 이다. 포월리 마을이 1960년 대 중반 무렵, 양양을 대표하던 전통한과인 과줄로 유명했던 ‘과줄마을’ 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당시 ‘양양과줄’ 이라는 이름으로 속초나 대포는 물론, 한계령(오색령) 넘어 영서 지방에 까지 내다 팔기도 하고, 도매 장사꾼들이 집집에 미리 물량을 주문해 놓을 만큼 유명하였다고 한다.

당시, 만들었던 양양과줄은 ‘자갈과줄’ 이었다. 우리나라 고유의 한

과제조 방식으로 불에 뜨겁게 달군 몽글몽글하고 잘잘한 자갈을 가마솥 뚜껑이나 솥뚜껑에 담아 놓고 반대기(산자)를 넣었다 빼면서 구워 조정을 바르고 쌀 튀밥을 묻혀 만드는 방식이다. 때론 달군 모래에 산자를 구워내기도 했지만 식용유가 귀하던 당시, 지금처럼 반대기를 튀겨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수 없었을 때,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부터 전해지던 자갈구이 조리법으로 만들었던 것이 양양과줄의 유래이다. 지금은 시장골목에서 밤새워 만든 과줄을 풀어 놓고 팔던 옛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추억은 볼 수 없어 못내 아쉬운 양양의 전통음식이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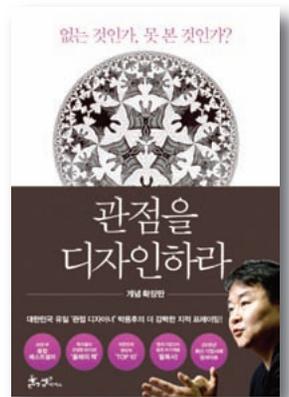
책 이야기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우리 주변에 넘치는 수많은 멘토들, 수많은 강연.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열광하는 강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강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연 속에서 바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문제들,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멘토들의 강연을 듣는 이유는 해결책이 아닌, 그 실마리와 단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이 실마리란 것들이 구체적일까요? 물론 그렇지 못합니다. 다분히 광범위하고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과 본질이 같을지라도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 흔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공감을 주며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멘토를 찾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훌륭한 멘토가 될 만한 책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혁신하세요.” 우리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이야기 대신 남다른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의 시작이 바로 ‘관점’인 것입니다. 저자는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좋은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올

관점을 디자인하라 / 박용후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다산의 마지막 공부
조윤제 지음, 청림출판, 2018
-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스펜서 존슨 지음, 인플루엔셜, 2018
- 마흔이 되기 전에
팀 페리스 지음, 토네이도, 2018

바른 질문’이 제대로 된 답을 얻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올바른 질문일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에 집중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른지 살피고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신만의 척도로 대답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려 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는 네 생각과 틀려!”라는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 ‘틀리다.’라고 말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화에 언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p. 42)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싸우는 식물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더숲 / 2018

저자는 식물에 대한 오랜 연구와 깊은 통찰을 통해 평화로워 보이는 식물도 사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자연계의 진실임을 이야기합니다. 냉혹한 자연계에서 식물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투쟁하지만, 결과적으로 식물은 적과 공생합니다. 단독 승리가 아닌, 동맹하고 연대함으로써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큰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수학이 정말 우리 세상 곳곳에 있다고

후안 사비아 지음 / 찰리북 / 2018

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 주는 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변 배경은 생략한 채 숫자와 공식으로만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학이 뜬금없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책은 수학을 배울 때 생략되었던 세상의 ‘배경’을 보여 줍니다. 마르코스와 함께 우리 세상 곳곳에 가득한 수학을 발견하다 보면 수학이 재미있고,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학자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 주어 사람들이 수학자에 대해 갖고 있던 회의적인 생각을 바꿔 줍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고로쇠 수액

청정양양 산골마을에서 채취되는 빼에 좋은 물, 고로쇠 수액

「고로쇠라는 말의 어원은 ‘빼에 이롭다’는 의미의 골리수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통일 신라 말에 도선 국사가 포천 백운산에서 오랜 기간 좌선을 하고 도를 깨우친 뒤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퍼지지 않아서 놀란 도선 국사가 엉겁결에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나려 하자 가지가 부러졌고 그 부러진 부위에서 물방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목을 축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 무릎이 퍼졌다고 한다. 이때 도선 국사가 나무에서 빼에 이로운 물이 나온다고 하여 ‘골리수’라고 명하였고 나중에 고로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정양양의 산골마을에서는 입춘이 되면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분주하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 수액채취량이 더 많다고 한다.

약간의 단맛과 나무향이 느껴지는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미네랄 함량이 높아 건강 음료로 인기가 높다.

이 시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기에 더욱 귀한 양양의 고로쇠 수액은 양양물에서 구입할 수 있다. 냉장고에 냉장보관 하여 식수대용으로 마시거나, 장기간 보관시는 냉동보관하는 것이 좋다.



Tip-양양물: www.yangyangmall.co.kr (문의 : 033-670-2704)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매홍엘앤에프	2명	곡물가공 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재성정보통신	1명	설계사무원	09:00~18:00 (주5일)	연2,160만원이상 (협의)
㈜골든에스앤씨 골든비치골프리조트	5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월6회휴무)	월210만원
	8명	룸메이드 하우스키퍼	08:30~18:00 (월6회휴무)	월210만원
㈜대명레저산업 쏟비치양양	1명	객실팀 컨시어지 (짐 상·하차 및 안내)	22:00~07:00	연2,360만원
	1명	객실팀 총클락 (객실정비 및 비품관리)	09:00~18:00	연2,360만원
㈜대정지엠피 골든비치골프리조트	2명	조경관리 및 코스관리	09:00~18:00 (격주5일근무)	연2,3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창현	1명	경리사무원	10:00~17:00 (주5일)	월156만원
명동 왕 만두	1명	주방보조원	조절가능	급여 상담후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골든에스앤씨	14명	객실룸메이드	08:30~18:00 (주6일)	월210만원
짜장면사무소	1명	홀서빙원	11:00~15:00 (주6일)	시급9천원
㈜디엠에스 (쏟비치)	5명	룸메이드	09:00~18:00 (주6일)	연봉2,360만원
낙산스타비치모텔	1명	객실 청소원	08:30~17:00 (주6일)	월220~230만원
희망실버하우스	1명	요양보호사 (60~65세 희망)	2일(낮), 2일(밤)근무 2일(휴무)	월190만원
㈜취찬 (낙산비치호텔)	2명	웨이터,웨이트리스 (정규직)	6사~15시/ 12사~21시 (2교대/월3회휴무)	연봉2,100만원
	2명	웨이터,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	6사~15시/ 12사~21시 (2교대/월3회휴무)	시급8,350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1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1.1.~3.31.(3개월간)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1588-0075

『찾아가는 운전면허서비스』일정 변경 운영

우리군민의 운전면허 행정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일 정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시 간	14:00 ~ 16:00(2시간)	
장 소	군청 1층 민원실	
업무내용	- 제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 면허증 분실 재교부 - 기타 운전면허 행정업무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사업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9. 2. 13. ~ 3. 12.
 - 조사방법 : 방문 조사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사업체
 -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담당조사원이 귀 사업체에 방문하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기획감사실 ☎ 033)670-2214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2. 1. ~ 3. 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지원
 -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직불제 담당 ☎033)670-2864 및 읍면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사무소 ☎033)631-6060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안내

- 도입배경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 확인
 -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대 상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 본추출된('18년도 5%)농가
- 절 차 : 시·군별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 → 매입시 시료채취 → 지역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 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 시료채취 : 지자체가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여 시료채취(600g)
 - 시료채취 시 시료확인서에 농가(대리 출하의 경우 대리인 서명 가능)와 농관원 검사관(산물벼의 경우 RPC자체검사관)이 서명
- 검정방법 :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농관원 고시)에 벼(쌀) 품종 검정방법에 의거 검정
 - 분석장비, 시약, 실험방법(시료채취 → DNA 추출 및 정제 → DNA 순도 및 농도 확인 → PCR 분석 → 검정결과 판정) 등
- 패널티 :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
- 당부사항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 요망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공 고
 - 공고기간 : 2019. 2. 1. ~ 2. 22. -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 접 수
 - 접수기간 : 2019. 2. 25. ~ 2. 28. - 접수장소 : 양양군청 환경과(선착순접수)
 - 접수계획량 : 180대
 -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금액 : 최대165만원(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이있음)
- 문 의 : 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331)

2019년도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 2019. 1. 21.(월)~2. 22.(금)
- 접 수 처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자치행정과) 및 읍면사무소
- 지급대상 :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중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에 소재한 대학교에 진학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
- 신청방법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서 장학생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나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
- 문 의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T.670-2767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운동, 캠핑, 스포츠 등 실외활동을 피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약학제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체제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을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눈을 물로 구수구수 씻고, 특히 침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행사 시간	주의 사항
1) 10월 20일 지방자치단체 1차 - 10월 20일 10시~12시	2) 11월 10일 1차 - 11월 10일 10시~12시
3) 12월 10일 1차 - 12월 10일 10시~12시	4) 1월 10일 1차 - 1월 10일 10시~12시
5) 2월 10일 1차 - 2월 10일 10시~12시	6) 3월 10일 1차 - 3월 10일 10시~12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특화먹거리 발굴 교육생 모집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해 양양의 트렌디한 먹거리를 발굴할 지역주민을 모집합니다.

2019. 1. 21.(월) ~ 2. 20.(수) 16시까지

서면 및 인터뷰 실시 2019년 2월 26일(화)

신청발표 2019년 2월 28일(목)

지원사항

- 1) 전문세프의 1:1 맞춤형 컨설팅, 지역특화음식 발굴 교육 지원
- 2) 양양 맛있는 아시안 내 시범사업 운영 지원
- 3) 시범사업 평가 우수자 창업지원금, 홍보사석비 지원(1명)

지원자격

- 1) 양양군 소재지 거주하는 만 20세 - 만 70세 지역주민
- 2) 전통시장 내 음식점 창업자로 take-out 음식 리뉴얼 또는 신규 개발 희망자
- 3) 양양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음식업 창업 희망자

신청방법

- 1)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yangyang2018>)
양양 찾기유 >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사업 지역특화먹거리 발굴 및 활용 교육생 모집
- 2)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 온라인접수 : r1achfhd5455@naver.com
- 방문접수 :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조은배 사무장 (양양읍 남문5길 9, 전통시장 2층 문화카페 내)

교육기간 2019년 3월 ~ 4월 / 총 5회 ※ 세부 교육 일정은 세프와 교육생이 조율하여 결정

문의처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Tel.033-673-3365
(우)지역활성화센터 권초롱 연구원 Tel.02-6357-8014

모집인원 총 4명(팀)

참가 신청서



양양군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운영위원회 지역활성화센터 지역활성화센터

2018. 12. 18.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 법) 시행

음주운전 부상사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1년~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최저 3년 이상 징역

양양군 · 속초경찰서

순찰 희망장소를 신청해주세요

국민이 원하는 곳에 경찰이 함께 합니다

신청방법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나 스마트 국민제보앱-사이트에서 신청해주세요

탄력순찰

주민들께서 순찰을 희망하는 불안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합니다

속초경찰서 SOKCHO POLICE STATION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0년의 여망,
우리가 이어갑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